

# 광양여고, 여왕기 전국축구대회 3연패



제32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한 광양여고 축구부가 우승기와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여고 제공>

## 결승서 울산현대고 2대0 제압... '무실점·무패' 대기록 금자탑 진혜린 최우수선수상·조혜영 득점상·김채빈 골키퍼상 수상

광양여고 축구부가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광양여고는 지난달 27일 경남 합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32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영원한 라이벌' 울산 현대고를 2대0으로 꺾고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광양여고는 이번 대회 폭발력 있는 득점력과 탄탄한 수비로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단 1골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다. 조별예선에서 화천정산고와 동부고에 각각 8대0, 7대0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 8강 상대 동산고 역시 7대0으로 대파한 뒤 준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 '강호' 포항여전고를 상대로 후반 7분 주장 조혜영(3년)의 절묘한 침투에 이은 득점으로 선제골을 뽑은 뒤, 후반 32분에는 범예주(2년)의 강력한 슈팅이 상대의 자책골로 기록되며 2대0으로 완승, 결승에 진출했다. 광양여고는 결승에서 후반 중반까지 0대0의 팽팽한 접전을 펼쳤으나, 후반 31분 진혜린(3년)의 롱킥을 전달받은 조혜영이 날렵한 침투에 이은 강력한 슈팅으로 천금같은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경기 주도권을 잡은 광양여고는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정하은(1년)이 왼발 감아차기로 쇄기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승리, 대망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대회 3연패 대기록을 달성한 광양여고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진혜린(2년)이 최우수선수상을, 조혜영(5경기 12득점)이 최다득점상을, 김채빈이 최우수 골키퍼상을 각각 수상했다. 권영인 감독과 김효선·이슬기 코치는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코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영인 감독은 "대회 3연패라는 큰 업적을 달성한 선수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을 포함한 전관왕을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신영식 전남축구협회장은 "열정과 투혼으로 흘린 땀이 값진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선수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 장위, AI 페퍼스 합류

## "팀 좋은 성적 위해 헌신"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4-2025시즌 아시아쿼터 선수로 선발한 장위(29·중국)가 팀에 합류했다. AI페퍼스는 2일 "아시아쿼터 선수 장위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AI 페퍼스는 지난 5월 11일 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 1순위 지명권으로 장위를 영입했다. 197cm의 장신 미들블로커인 장위는 2013년부터 중국 리그의 BAIC 모터에서 활약하며 리그 베스트 미들블로커에 한 차례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U23 중국 국가대표로 AVC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선수다. 장위는 "한국에 도착해 보니 이제 시작이라는 실감이 난다"며 "이번 시즌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헌신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



2일 입국해 AI페퍼스에 합류한 장위. <AI페퍼스 제공>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장위는 우리 팀의 높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공격 옵션 또한 풍성하게 만들 선수"라며 "팀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고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비시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 파리올림픽 태극전사가 된다 ② 펜싱



지난 5월 2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4회 연속 금' 질러라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 도전... 여자 에페도 금메달 후보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효자 종목'으로 활약해 온 펜싱이 세대교체에 맞이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빛 찰랑'에 나선다. 펜싱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한국에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안긴 종목이다. 메달 수로만 보면 양궁(금2·은9·동7)이나 태권도(금12·은3·동7) 등 한국의 다른 강세 종목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펜싱의 메달은 2000년대에만 나온 것이다. 특히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선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2연패(2016년 리우 대회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미개최)를 달성했고, 여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은메달을 가져왔다. 남자 에페 단체전과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이 나와 한국이 출전권을 획득한 모든 종목에서 단체전 입상에 성공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번 파리 대회를 앞두고도 지난 대회 결승에 올랐던 남자 사브르 단체전과 여자 에페 단체전이 금메달을 노릴

만한 주력 종목으로 꼽힌다. 남자 사브르는 기존 주축인 오상욱(대전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예급인 박상원(대전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이 합류해 파리로 향한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강영미(광주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으로 멤버가 유지됐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대표팀은 최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4연패를 달성하며 실전 점검을 마쳤다. 2회 연속 단체전 입상을 노리는 여자 사브르는 윤지수와 전하영(이상 서울특별시청), 최세빈(전남도청), 전은혜(인천중구청)가 팀을 이뤘다. 단체전 출전권을 딴 이들 3개 종목엔 한국 선수가 3명씩 개인전에도 출전할 수 있는데, 오상욱과 송세라가 개인전에서 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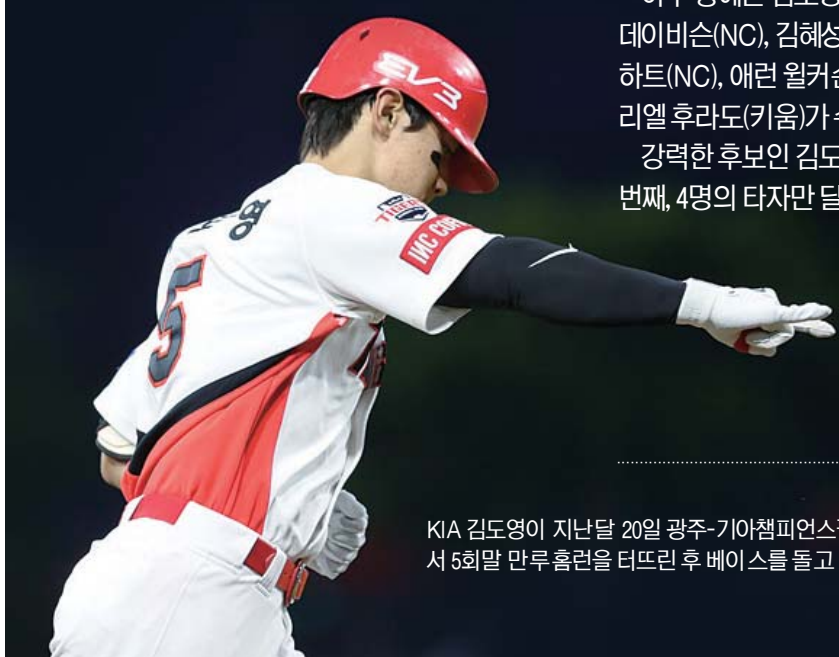
## 전반기 '20-20' 김도영, 두번째 월간 MVP 도전

### KBO, 6월 MVP 후보 8명 공개

전반기에만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하며 KIA 타이거즈의 선두 직주를 이끌고 있는 '제2의 이

종범' 김도영이 지난 3-4월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월간 MVP 수상에도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김도영을 포함해 총 8명의 KBO리그 6월 MVP 후보 선수를 확정했다. 야수 중에는 김도영을 비롯해 최정(SSG), 맷 데이비스(NC), 김해성(키움), 투수 중에는 카일 하트(NC), 애런 윌커슨(롯데), 이승현(삼성), 아리엘 후라도(키움)가 수상을 노린다. 강력한 후보인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5번째, 4명의 타지만 달성해 본 전반기 20홈런 20도루를 완성하며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했다. 6월 열린 24경기에 출전해 27득점

로 이 부문 1위, 홈런 8개로 2위, 장타율 0.681로 3위에 더해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에서도 1.149로 2위에 오르며 완벽한 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즌 3-4월 월간 MVP를 이미 수상한 김도영은 초반 성적이 반짝 활약이 아님을 증명하며 시즌 2번째 월간 MVP에도 도전한다. 김도영을 위협할 후보로는 타율 1위, 안타 2위 김해성과 4승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한 윌커슨이 꼽힌다.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오는 7일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 최종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월간 MVP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추홍철 기자



KIA 김도영이 지난달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5회말 만루홈런을 터뜨린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 유럽으로 출국... 포엣·바그너 만난다

## 외국인 감독 급물살 타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군에 오른 외국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 축구계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2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이 기술이사는 거스 포엣(56)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52) 전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감독을 만날 예정이다. 국내 감독 후보들은 축구협회 최고

위층이 원하지 않고 본인들도 고사하면서 사실상 '논외'로 된 가운데, 포엣 감독과 바그너 감독, 그리고 그레이엄 아널드(60) 현 호주 대표팀 감독 등이 최종 후보로 남아있다. 이 기술이사는 정혜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갑작스럽게 물러나자 그의 뒤를 이어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력강화위는 정 위원장 체제에서 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을 보인 100명이 넘는 외국인 지도자를 놓고 평가를 진행해왔다. 정 위원장은 매력적인 외국인 지도자는 연봉 등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데려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흥분보울산 HD 감독, 김도훈 감독 등 국내 지도자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 축구협회 최고위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거스 포엣(왼쪽)과 다비드 바그너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위원장이 물러나자 그를 따라 전력강화위원 여러 명이 사퇴한 가운데, 이 기술이사는 전력강화위에서 이미 추려놓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선수 '연봉킹'... 김연경·강소휘 '연봉퀵'

한선수(대한항공)와 김연경(흥국생명), 강소휘(한국도로공사)가 프로배구 2024-2025년 최저 보수 선수로 공식됐다.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1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선수는 연봉 7억5천만 원에 옵션 3억3천만 원을 더해 총액 10억8천만 원에 계약해 4시즌 연속 남자부 최고 보수 선수 자리를 지켰다. 대한항공 정지석(총액 9억2천만 원, 연봉 7억 원, 옵션 2억2천만 원), OK금융그룹 이민규(총액 9억800만 원, 연봉 8억 원, 옵션 1억800만 원), 현대캐피탈

허수봉(총액 8억 원, 연봉 8억 원)은 그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김연경과 강소휘가 똑같이 연봉 5억 원, 옵션 3억 원, 총 8억 원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총액 7억7천500만 원, 연봉 4억7천500만 원, 옵션 3억 원), IBK기업은행 이소영(총액 7억 원, 연봉 4억5천만 원, 옵션 2억5천만 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